

#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일본/도쿄지사)

## I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2022.3월]

### 1. 한국산 김치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등록

- 일본 소비자청이 운영하는 기능성식품제도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사용한 한국산 배추김치(T사)가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 완료되어 기능성 문구를 표기하여 판매가 가능해졌다.(3.22자 등록)
  - 일본 소비자청에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된 김치는 모두 8개 제품이지만 그중 한국산 김치가 등록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 aT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산 식품의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등록을 준비했다. aT 도쿄지사는 프락토올리고당에 정상작용 기능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일본 연구기관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김치연구소와 수출업체와 함께 시제품 제작, 성분분석, 신고서 작성 등 협업을 추진한 노력 끝에 일본정부로부터 프락토올리고당이 들어간 한국산 김치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인정받게 됐다.
- ※ 기능성표시식품은 판매자가 과학적 검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비자청에 신청 등록될 경우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기능성을 상품에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2. 시사점

- 일본은 최근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한국산 제품들도 기능성표시식품 등록을 적극 취득함으로써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aT에서는 기능성표시식품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aT 도쿄 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 문의처 : aT도쿄지사 권정은대리(jekwon@atcenter.or.jp)

## 1. 첨가물 이산화규소 사용에 따른 주의 환기

- 한국산 식품류에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이산화규소의 일본 사용 기준치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대일 수출시 위반사례 사전 방지
- 이산화규소는 식품에 고결방지제로 사용되는 실리콘과 산소의 천연 화학물질 혼합물로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어지고 있음

###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

- 제조용제로 사용하는 첨가물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로 평균 입경이 15 $\mu$ m 보다 큰 경우를 말함
- 여과조제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고, 최종식품의 완성전에 제거시켜 제품에 남아 있어서는 안됨

### 【미립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fine)】

- 제조용제로서 사용하는 첨가물 미립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 fine)로 15 $\mu$ m 이하 크기를 말함
- 사용기준치 : 2.0%
- 특정보건용식품의 캡슐 및 정제와 영양기능 식품의 캡슐 및 정제이외의 식품에 규산칼슘과 병용 사용시 각각의 사용량의 합산치
- 모유대체식품 및 이유식에 사용되어서는 안됨

관련사이트 :

<https://www.ffcr.or.jp/webupload/32654979e8dfe8d6ba34d3f5c7f117d46b948ccf.pdf>

## 2. 시사점

- 최근 대일 수출용 한국산 식품류에 이산화규소 첨가물이 사용되어 잔존되는 경우가 많아 위반사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으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시 됨

##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 ○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2.3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모두 68건이 발생함(식기류 제외)
- 3월의 한국산 식품위반사례 없으나, 4월에 발표된 후생노동성 최신 자료에 의하면 냉동떡볶이 등에서 5건의 위생위반과 신선청고추 등에서 3건의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발생함
-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 및 항균제 등 위반사례가 13건(19.1%), 아플라톡신 위반이 18건(26.5%), 대장균 균 양성 및 세균수 기준치 초과 등 위생위반이 25건(36.8%), 첨가물 위반이 7건(10.3%), 기타 5건(7.4%) 으로 나타나 위생위반이 제일 많은 건수를 차지함

##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3월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11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위반건수가 제일 높았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 중 16.2%를 차지함
- 브로콜리 등 잔류농약 위반 3건, 소바에서 아플라톡신 위반 1건, 냉동 시금치, 피조개, 냉동 생선류에서 대장균, 세균 수 초과 등 위생위반 6건, 히나베소스에서 첨가물 위반 1건 등 계 11건의 위반이 발생함

### ○ 미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신선레몬에서 잔류농약 위반 1건, 피스타치오, 아몬드, 볶은 땅콩 등 아플라톡신 위반이 7건, 에그랩 세균 초과, 보리에서 곰팡이 발생 등 위생 위반 2건 등 계 10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태국산 수입식품 위반사례

- 태국고추에서 잔류 농약 위반이 2건, 칠리파우더에서 아플라톡신 위반이 1건, 냉동 새우, 정미(쌀)에서 곰팡이 발생 등의 위생위반 5건으로 계 8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냉동 양식 새우에서 잔류농약 위반 1건, 볶은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위반 1건, 냉동 대체육과 냉동 새우튀김에서 위생 위반 2건, 간장, 라면에서 첨가물 위반 2건 등 총 7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인도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냉동 새우에서 잔류 농약 위반 3건, 마살라 차에서 아플라톡신 위반 1건, 마살라 차 분말에서 위생 위반 1건, 과자에서 첨가물 위반 사례 1건 등 계 6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위반 1건, 냉동 메론에서 위생위반 1건, 원료용 사과 과즙에서 성분규격부적합 등 계 3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표1>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

국가명	위반건수	위반율	잔류농약 및 항균제등	아플라톡 신	위생	첨가물	기타	위반합계
중국	11	16.2	3	1	6	1		11
미국	10	14.7	1	7	2			10
태국	8	11.8	2	1	5			8
베트남	7	10.3	1	1	2	2	1	7
인도	6	8.8	3	1	1	1		6
남아공	3	4.4		1	1		1	3
기타	23	33.8	3	6	8	3	3	23
합 계	68	100.0	13	18	25	7	5	68
합 계			19.1	26.5	36.8	10.3	7.4	100.0

<표2>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



※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